성리적 이상공간에 담긴 퇴계의 숨결과 사상

《陶山書院》

올해는 '해동주자' 라 불리며 우리 현실에 맞는 성리학 체계를 완성한 퇴계 탄신 5백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이를 기념해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굵직굵직한 국제행사가 열리고, 퇴계와 퇴계학에 대한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퇴계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우성 엮음 | 황헌만 사진
한길사/A4변형/350면/50,000원

《陶山書院》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도록' 에서는 도산서당과 제자들이 그의 사후 창설한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퇴계 만년 삶의 숨결을 되살리고, '논문선집' 에서는 국내외에서 연구된 퇴계의 삶과 사상 · 문학 · 예술관 등을 조명한 논문 가운데 11편의 수작을 가려 뽑았다. 이 가운데 도록은 그동안 일반인에게는 쉽게 공개되지 않았던 도산서원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사진자료다. 퇴계의 문집을 비롯한 여러 종의 목판이 보관된 장판각과 도산서원의 장서각 동 · 서광명실의 내부, 그리고 퇴계를 배향하는 향례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퇴계의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논문선집으로 이어진다. 먼저 이 책을 엮은 퇴계학연구원장 이우성 교수는 퇴계의 서원창설에 주목해 퇴계가 주도한 서원창설 운동은 바로 성리학 토착화를 위한 환경조성이었다고 밝힌다. 그 근거로 이 교수는 퇴계 이후 나타난 두가지 중요한 역사적 변화, 곧 사림정치가 본격화하면서 성리학적 언론이 정치를 주도한 점과 학문 그 자체가 일생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통념이 자리 잡은 사실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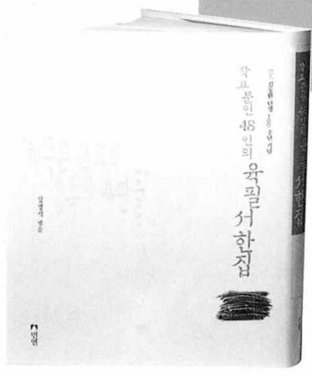
또한 서울대 한국철학과 금장태 교수는 퇴계의 생명사상에 집중해 퇴계철학의 현대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버드대 동양철학과 두 웨이밍 교수는 〈주자의 이(理)학에 대한 퇴계의 독창적 해석〉에서 퇴계는 자타가 공인하는 주자의 후계자였지만, 그가 이룩한 사상은 주자의 원래 개념들을 좀더 정제 · 발전시켰다고 평가한다.

논문이 대부분 퇴계와 퇴계학에 바쳐진 반면, 성균관대 건축학과 이상해 교수는 '퇴계의 서원건축관과 도산서당 및 도산서원 건축에 반영된 조영사상' 에 주목한다. 이교수는 "퇴계의 천인합일 정신은 도산서당 조영에 나타난 특성"이라고 밝히고, 삶의 공간으로 재현된 퇴계의 철학을 돌아본다. — 박옥순 기자

편지글에 담긴 문인들의 일상과 문학

《작고문인 48인 육필 서한집》

파인 김동환 탄생 1백주년을 맞아 김동환의 셋째아들 김영식이《작고문인 48인 육필 서한집》(민연)을 엮었다. 김동환을 비롯해 박종화, 김광균, 이용악, 조지훈, 이육사, 박목월, 이효석, 노천명, 최정희 등 한국문학의 대표문인 48명의 육필편지 215통을 모았다.



김영식 엮음
민연/A4/400면/80,000원

편지는 시대순으로 배열했으며, 원본은 컬러사진으로 넣고 그 아래 전문가들의 판독을 거친 원문을 실었다. 이 서한집의 편지들은 오래된 것은 70여년 전에 씌어진 것도 있어, 원본편지만 봐서는 판독이 여간 어렵지 않다. 표기법도 지금과 다르고, 대부분 세로쓰기로 돼 있는 데다 초서체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아예 일본어로 쓰거나 일본어를 섞어 쓴 편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쓰이지 않는 표현과 단어,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들, 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 문인들이 편지에 잘못 쓴 표현과 한자 등은 각주를 달았다. 또한 일본어로 쓴 편지와 일본어를 섞어 쓴 편지는 번역문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어제 음악회 재미 좋으셨는지. 저는 파해 나와서 술 한 잔 먹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드군요. 육사(陸士)가 냈습니다. 전북, 송이버섯, 게장, 귀한 술안주가 많았습니다" 고 쓴 안회남의 편지처럼 그 시절 문인들의 여흥을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가을이라고는 할 수 없으리만큼 추워졌읍니다. 풀벌레들은 끝까지 울지도 못한 채로, 나는 벗은 채로 겨울을 맞이하는가 봅니다. 두 달 남짓한 실직(失職)으로 히야 이렇게까지 파리해질 법이 있겠읍니까. 여기서도 마음의 시장기를 면할 수가 없읍니다"며 이용악이 김동환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그 시절 문인들의 고민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직접 그린 그림에 "금강에 오니 노래가 불르고 싶소"처럼 짧은 안부를 적어보낸 김환기의 편지도 눈길을 끈다.

이 책에는 또 편지글의 맥락과 배경, 문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학평론가 김용직이 쓴 해제도 곁들여졌다. 김용직은 "시인 · 작가의 문장은 그의 일상생활과 작품세계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정보의 공간이다. 나아가 아주 빈번하게 그들의 서간은 그 자체가 문학의 한 양식일 수 있는 것이다" 며 문단사와 문학사의 관점에서 문인들이 쓴 편지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장근 기자